

대학가 집단감염 '비상'... 2학기 대면수업 확대 '빨간불'

광운대·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강릉 전지훈련서 집단감염 대학가 "대면수업 어려울 듯" 교육부 "상황 더 지켜봐야"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계획했던 대학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운대·연세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다.

최근 2학기 대학 전면 대면 수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던 교육부도 "추이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광운대와 연세대 아이스하키부에서 각각 21명, 1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운대에서는 감독과 학생 20명이, 연세대는 학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대학 아이스하키부는 강원도 강릉에서 함께 연습 경기를 했다.

두 대학은 훈련 전 아이스하키부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했고, 당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



광운대·연세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대 확진자 비중이 크게 늘면서 2학기 대면 강의 확대를 계획했던 대학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달 24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울청사에서 '2학기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발표' 프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만 바이러스가 잠복기를 지나 늦게 발현됐거나, 훈련 과정에서 외부 접촉 등의 이유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젊은 층 확산세도 가파르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일과 14일 이틀 사이 전국 대학 신규 대학생 확진자 수는 60명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대학들의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수업방침을 이미 정해놨다"며 "학생들이 2학기 수업방침을 미리 알아야 주거지 문제나 수강신청 등을 원활히 할 수 있기에 7월말 상황을 보고 논의해 2학기 전반적인 8주차 동안의 수업방침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면, 2학기 대면수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

는 "빠르면 7월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대면 수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강 5주를 앞둔 현재 거리두기가 4단계인 상황이기에 때문에 2학기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시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부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대학 대면 등교 확대와 관련해서는 확답하기 어렵고, 확진자 추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2학기 대면 활동 단계적 확대는 교육부가 대학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대학별 여건과 환경의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학기 대학의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단계적으로 대면활동을 확대하되,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맞춰 대학 대면 활동 방향을 구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대학의 실험·실습·실기나 소규모 수업, 전문대부터 시작해 9월 말 이후 점차 대학 대

면 수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2학기 대면 수업 확대가 예고된 대학의 방역 인력 지원이 부족한 점도 우려 사항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학 방역 인력 한시 지원 예산은 54억6800만원, 인력은 2000명 규모다. 사업 대상은 대학 199곳, 전문대 133곳, 대학원대학 42곳 등 총 374개교로, 대학 한 곳당 방역 인력 5명 내외가 배정되는 셈이다. 범위가 넓은 대학 방역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 의원은 "캠퍼스가 넓고 건물이 많은 데 재정 당국이 조정할 인력은 한 대학에 5명뿐"이라며 "교육부 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모두 조정된 것으로 하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실적인 방역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예산이 모자란 감이 있다"며 "방역 인력 지원비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대학생 꿈의 기업은 '카카오'... 2년연속 1위

인크루트 대학생 1079명 설문 2위 삼성전자, 3위 CJ ENM

카카오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이유로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선정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1079명을 대상으로 '2021 대학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에 이어 카카오가 전체 중 1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또 한 번 1위를 차지했다.

카카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도 다방면 신사업을 발굴·추진하는 활발한 이미지가 대학생의 기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위는 10.7%의 득표율을 기록한 '삼

성전자'였다. 삼성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응답자 과반이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 (55.6%)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CJ그룹 계열사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다. CJ ENM(7.0%)의 경우 작년 조사 대비 한 단계 상승한 3위를 기록했고, CJ제일제당(5.9%)은 작년 9위에서 4위로 단숨에 5계단 순위 상승했다.

CJ ENM 또는 CJ제일제당을 뽑은 사람들에게 선택 이유를 묻는 결과 동일하게 '동종업계와 지역사회, 해외에서 선도하는 이미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작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순위가 하락, 또는 순위권 밖으로 이탈된 기업도 있다. 네이버(5.1%)는 2019년 1위에서 2020년 3위, 올해 조사에서는 5위

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4.1%)와 아모레퍼시픽(3.4%)도 각각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한 7위와 8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변화가 대학생 기업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기업 선호도 순위권에 꾸준히 들었던 항공여객업은 코로나19 상황 탓에 고전했다. 2019년과 2020년 조사에서 연속 5위를 유지했던 대한항공은 이번 조사에서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순위권 재진입 또는 신규 진입한 기업도 있었다. 2019년 4위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는 2020년에 10위권에 오르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6위(4.6%)에 올랐고, LG화학(3.2%)과 BGF리테일(2.4%)은 각각 9위와 10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와 한양대, 세종대, 장신대 등 서울시 동북권 대학 4곳이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OU 협약식에서 4개 대학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건국대

건국대, 동북권 대학과 창업클러스터 구축

한양대·세종대·장신대와 업무협약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한양대·세종대·장신대 등 서울시 동북권 대학들과 캠퍼스타운 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청년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국대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울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KU반려

동물 산업과 문예의 거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과 학생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대학의 캠퍼스타운은 기관 간 연계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북부 지역의 창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청년창업 확산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대 건축학과

온라인 졸업전시회 개최

삼육대학교 건축학과는 2021 온라인 졸업전시회 '인권건축(HRA)'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전시회는 예년처럼 오프라인으로 기획됐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돼 열렸다. 전시 작품은 페이스북 그룹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종료기간 없이 상시 이뤄진다.

이번 전시회에는 졸업예정자 31명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별히 '인권'이라는 화두를 두고 폭넓고 깊이 있게 고민한 건축학도들의 사색의 결과가 담겼다. 작품들은 크리틱을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선정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메타버스 활용 특강 등 진행

사이버대 최초 플랫폼 적용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서울사이버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매주 메타버스 플랫폼 속 가상공간에서 교수진들이 교수회의를 진행해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총학생회와 함께 박찬수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메타버스에서 방향을 찾다' 특강과 온라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주제로 총학생회 임원 간담회를 메타버스를 활용해 진행했다.

강재석 서울사이버대 총학생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위주로

운영되던 학생자치활동이 침체돼 고민이 많았는데 실제 현실에서 소통하는 것과 같은 재미를 갖춘 메타버스를 통해 온라인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찾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대학과 함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살린 메타버스 활용 활동도 기획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관계자는 "기존 오프라인이 아니면 누리기 어려웠던 다양한 교육방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접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원격대학을 평가한 세 차례 공식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이현진 기자

'네이버 자격증', 잡코리아 이력서에 연동

앞으로 잡코리아에서 '네이버 자격증'을 연동해 이력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잡코리아와 '네이버 자격증·인증서 기반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이후 양사는 하반기부터 네이버 자격증 서비스에 등록된 한국산업인력공단 495종, 대한상공회의소 19종을 잡코리아에서 이력서를 쓸 때 쉽고 빠르게 불러오는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 자격증은 정보처리기

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한식조리기능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용빈도가 높은 유용한 자격증을 서비스하고 있어 구직자 만족도가 높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구직자는 잡코리아 이력서 등록/수정 과정에서 '네이버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네이버에 등록된 자격증 정보를 연동시킬 수 있다. 번거롭게 실물 자격증을 확인하거나, 해당 발급기관에 조회할 필요없이 발급번호, 발급일, 기관명 등을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자동 기입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